

삼성SDI, Q4 영업적자 2068억원

2007년 4/4분기 매출 1조5290억원 ... 브라운관 구조조정 비용 반영

삼성SDI가 2007년 4/4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5290억원, 영업적자 2068억원, 순손실 2739억원의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1월23일 공시했다.

또 2007년 전체는 연결기준으로 매출 5조1490억원, 영업적자 5726억원, 순손실 5922억원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2007년 4/4분기 206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3/4분기 1182억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고 순손실도 3/4분기 1030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커졌다.

국내 브라운관 사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90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2007년 4/4분기 영업실적이 악화된 것은 국내 브라운관 사업장의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된 데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설비의 감가상각이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이 떨어지는 브라운관 사업을 정리하고 PDP와 AM OLED 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사업비중을 증가시키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2008년 매출목표는 24% 성장한 6조3000억원을 달성해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PDP 사업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110만개의 모듈을 판매했으며 매출은 5040억원을 달성했다.

50인치 이상 대형 기종 판매는 62%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로 높아졌다.

2007년에는 PDP 모듈을 310만대를 팔았으며 매출은 1조4760억원을 달성했다.

2008년 중국과 타이완의 고객 기반을 확대해 PDP 모듈을 전년대비 71% 늘어난 530만대 판매하고, 특히 50인치 이상 대형 제품비중을 전체의 53%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지분야는 2007년 4/4분기 1억900만개를 판매했으며 매출은 전분기대비 15% 증가한 2860억원을 기록해 분기 최대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

2007년 전체적으로 삼성SDI 전지사업은 매출이 전년대비 32% 성장한 9120억원을 기록하면서 삼성SDI의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SDI는 2008년 전년대비 36% 늘어난 총 5억1000만개의 전지를 판매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는 2007년 4/4분기 매출이 전분기대비 24% 증가한 5200만개를 기록했고 매출은 3640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07년 영업실적은 상반기 판매 부진으로 수량은 전년대비 13% 줄어든 1억7200만개를 기록했고 매출도 1조2530억원으로 40% 가까이 감소했다.

삼성SDI는 2008년 AM OLED 제품비중을 점차 늘려가면서 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산은 전년대비 42% 늘어난 2억4400만개를 팔 계획이다.

브라운관 사업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2007년 전체적으로 판매대수는 3950만대, 매출은 35% 감소한 1조441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수익성이 좋은 빅슬립 제품 생산에 주력해 중국 Tenjin과 Shenzhen, 브라질 라인을 추가하는 등 빅슬립 제품의 생산을 확대해 2007년 860만대에서 2008년에는 12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23>